



답안지 (인문계)

답안지 바코드



204750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예:030401)	

수험생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번필, 사프)으로 작성하십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사용금지)	
2.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지우개(연필, 사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 작성하십시오.	
3.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0'점 처리 됩니다.	
4. 본 고사는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시문 (가)는 정보를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해설하는 능력인 리터러시를 강조한다. 세상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인 리터러시는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객체로의 영기인 정신의 관료화를 경계하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해 논할 때 가치가 발견된다. 타당성 신뢰성 등이 결여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리터러시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와 리터러시 개념으로 인해 대두된 사회적 경차이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과 이로 인한 학습 접근성의 차이가 리터러시 격차를 낳는 것이다. 사회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연한 이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문 (가)는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리터러시가 부족한 영국 대중들이 가짜 뉴스에 선동당한 빨간 버스 구호 사건을 예로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당시 영국이 EU에 애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증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빨간 버스의 구호는, 영국이 EU로부터 약 절반 가량의 우방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인해, 영국 보수당 각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허위 정보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리터러시를 갖춘 유권자라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이며 이 정보는 그 객체로 인용한 한가?' 등의 질문을 할 것이다. 정보의 출처가 보수당임을 알게 된 후에는, '혹시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한 것은 아닐까?' 하고 정보를 심층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타당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고 정보에 대해 의문을 가칠 것이다.
제시문 (다)의 국가 A는 안 15세 학생들의 영기 평균 점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리터러시가 가능한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할 것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리터러시를 신장하기 위한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정보의 종합적 및 심층적 해석을 위한 다각적 사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가령, 코로나 19에 관한 여러 정보들 중 허위 정보 구분하기, 팬더믹이라는 상황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의견 종합하기가 있다. 국가 B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기 평균 점수가 일반 학생은 무참에 가까운 반면,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보다 조금 높은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전체 평균 점수는 비교적 260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일반과 저소득층 학생 간 평균 점수 격차도 여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와 이로 인한 리터러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교육 접근성 확대 등이 있다.





답안지 (인문계)

답안지 바코드



205452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예:030401)

수험생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사프)으로 작성하십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사용금지)
2.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지우개(연필, 사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 작성하십시오.
3.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0'점 처리 됩니다.
4. 본 고사는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합니다.

리더러시란,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 채구성하는 문해력을 실현  
하고 이를 사회에 주체적으로 적용, 공유하는 능력으로 공동체적 사  
회 변혁의 도구이다. (A)의 구호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탈퇴를 지지하던 영국 보수당의 유세차량에  
붙어 있었다. 이 구호에는 영국의 대주박에 한 양의 자금을 유령연  
에 응급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이 돈을 국민 보건의 투자가  
강하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매체 즉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리더러시  
를 갖춘 유권자였다면 구호 즉 정보를 가장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  
을 것이다. 그는 우선 정보가 검증된 자료인지 출처를 확인하여  
실재 여부와 신뢰성을 따졌을 것이다. 실제 정보 자체는 사실이  
있을지라도, 그 후 TV로 부터 돌아온 선택과 그 가치에 대해 따져 봐  
야 한다. 지금으로의 반환 그 의미의 것도 따져볼 것이다. 상대적으  
로 정제가 활성화된 영국인만큼, 라유럽 국가들에게 EU가 이여한  
도움을  
주는지, 이로써 유럽 전체가 상부상조하며 함께 경쟁하는 공동체  
적 의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것이다. 당장은 국가적 큰일이 될지  
라도 이는 타국의 성장을 도와 보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든다는  
것에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시 단순히 구호 자체는 '큰  
건적 손해' 외에 연합 탈퇴 시 큰방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에 끼칠  
영향과 국가 이피지의 타적 등에 대한 질문들을 여울릴 것이다. 또,  
탈퇴로 아진 자금이 국민 보건의 호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저보고 다양한 견해를 접하기 위해 탈퇴 반대의 정보도 찾아본다.  
(B)에서 [그릴 1]을 보면,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릴 2]를 통해 자세히 보면, 자로 자체를 못 읽는 학생은 감소  
했으나, 문해력과 더 보이가 클을 평가하는 학생은 감소했다. 국가 B  
의 [그릴 3]에서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비모적 일정하지만, [그릴 1]  
를 통해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리더러시 격차는 좀더  
증  
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양극화를 넘어, 보두가 현력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방해하므로 개선이 양될모하다. 학생들은 정보 습  
득  
시, 유연한 사고를 통해 중요없이 결론하고 따져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국가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고  
목  
지양해야 한다. 또, 리더러시 격차의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  
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무료 수업 등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갖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가  
원봉사에 참여한다면 모두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새로운 시  
대  
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